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참여실태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고 은 주

2009년 8월

#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참여실태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혜연

고은주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고은주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8월

# Participation in Women'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 with a focus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Eun-joo Ko

(Supervised by Professor. Hye-ye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Home Economics

2009. 8.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국문초록 .....	iv
<b>I. 서 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b>II. 이론적 배경 .....</b>	<b>3</b>
1. 여성 직업교육의 개념과 목적 .....	3
1)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	3
2) 여성 직업교육의 개념과 정의 .....	7
3) 여성 직업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	10
2. 여성 직업교육 실태 및 현황 .....	13
1) 외국의 여성 직업교육 실태 및 현황 .....	13
2) 우리나라의 여성 직업교육 실태 및 현황 .....	19
3) 제주지역 여성 직업교육 실태 및 현황 .....	27
3. 이론적 배경 .....	33
1) 여성 직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	33
2) 관련 변수 고찰 .....	34
<b>III. 연구방법 .....</b>	<b>37</b>
1. 연구문제 .....	37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9
<b>IV. 연구결과 및 해석 .....</b>	<b>41</b>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1
1) 가정관련 특성 .....	41
2) 직업관련 특성 .....	43
2.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 .....	44
1) 직업교육 참여동기와 수강시 어려운 점 .....	44

2) 직업교육프로그램 기대치와 교육기관 요건 .....	45
3)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과 사후관리 .....	46
4)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사항과 발전방안 .....	48
3.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49
4.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수강생들의 일반적 특성 분석 ...	50
<b>V. 결론 및 제언 .....</b>	<b>53</b>
<b>참고문헌 .....</b>	<b>57</b>
<b>Abstract .....</b>	<b>61</b>
<b>부록. 설문지 .....</b>	<b>63</b>



## 표 목 차

<표 1> 성별 경제활동 인구 추이 .....	3
<표 2> 성별 비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	5
<표 3> 제주지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	6
<표 4> 제주지역 여성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 추이 .....	7
<표 5> 2008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시·도별 분포현황 .....	24
<표 6>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내용 .....	24
<표 7> 전국 여성회관 분포 현황(2008년 5월 기준) .....	25
<표 8>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실적(2004-2007) .....	28
<표 9>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직업프로그램(2008년) .....	29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부 현황 .....	30
<표 11> 여성능력개발부의 직업훈련실적(2004-2007) .....	31
<표 12> 여성능력개발부의 여성직업프로그램(2008년) .....	32
<표 1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38
<표 14> 조사자의 가정관련 특성 .....	42
<표 15> 조사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 .....	44
<표 16> 여성 직업교육 참여동기 .....	45
<표 17> 여성 직업교육 수강 시 어려운 점 .....	45
<표 18>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기대치 .....	46
<표 19> 여성 직업교육기관의 요건 .....	46
<표 20>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	47
<표 21> 수료 후 사후관리 .....	47
<표 22>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사항 .....	48
<표 23> 향후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발전방안 .....	48
<표 24>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	49
<표 2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차이분석 .....	51

## 그 립 목 차

[그림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	4
[그림 2] 2006년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6
[그림 3] 직업교육의 역할 변화 .....	13

<국문초록>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참여실태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고 은 주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연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직업교육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부, 그리고 서귀포여성문화센터의 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과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참여실태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 만족도에 따른 수강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직업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 6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표본은 397명이었다. 조사내용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참여실태와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은 빈도, %, 평균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문제의 분석은 빈도분석, Chi-Square, t-test, 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이용한 프로그램은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은 대체적으로 30대 이하로 고졸이상 교육을 받았으며 생활은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직업이 있는 수강생이 많았으며 사무·기술직과 정규직으로 퇴직기간은 6년 이상 이었다.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이유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지만 여가 선용 및 취미생활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는 다르게 실제로 취업을 원하는 수강생 대상으로 여성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수강시 어려운 점은 육아문제, 경제적 문제, 교통 불편이었지만,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기대치가 충족되었고,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 사항으로는 전문자격증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취업·창업지원 등 관련분야 자격 취득을 통한 여성전문인 양성과 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현재 직업이 있는 수강생들이 교육기관 및 교육환경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은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지 않아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차별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취업과 교양 과정을 구별하는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시해준다.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이유로는 인구의 노령화 및 출산율 감소로 노동력 수요에 대한 새로운 공급이 필요해졌으며,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탄력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육체적 특성 보다는 지적 능력이 우선시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달성이 여성노동력의 활용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 여성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UNDP인간개발보고서 2007]에서 제시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에 따르면 177개국 중 우리나라는 26위를 기록했고, 여성의 정치 및 정책 결정, 참여도를 측정하는 여성 권한척도(Gender-related Empowerment Measure : GEM)에서도 94개국 중 68위의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미시적으로 개인이나 가계의 생활수준과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전체 노동력의 양 및 질, 나아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좌우하게 되므로(김혜연·김순미, 1998), 여성 노동력의 잠재성과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여성의 직업의식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여성 직업교육은 여성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여성 직업교육을 위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 직업교육기관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하는 일련의

1)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1980년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5.8%인 5,412천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38.3%, 2000년에는 40.3%, 2008년에는 41.6%인 10,121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09).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곳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여성 직업교육을 통해 여성의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기여가 있어 왔다. 그러나 여성 직업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들이 교양 강좌나 단순 직업 서비스 중심이며, 실제 직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되거나 고부가 가치 분야로의 여성인력 진출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수강생들의 특징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제주지역의<sup>2)</sup> 여성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직업교육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부, 그리고 서귀포여성문화센터 등 3곳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실태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수강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직업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 57.5%, 2000년 60.7%, 2008년 61.0%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통계청, 2009).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 직업교육의 개념과 목적

#### 1)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70년의 15세 이상 인구를 보면 여성은 52.5%인 9,194천명이었으며 이후 1980년에는 51.7%, 1990년 51.7%, 2000년 51.6%, 2008년 현재 51.2%인 20,273천명으로 여성의 1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1970년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4.3%인 3,615천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35.8%, 1990년 38.3%, 2000년 40.3%, 2008년 현재 41.6%인 10,121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구 비중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표 1> 성별 경제활동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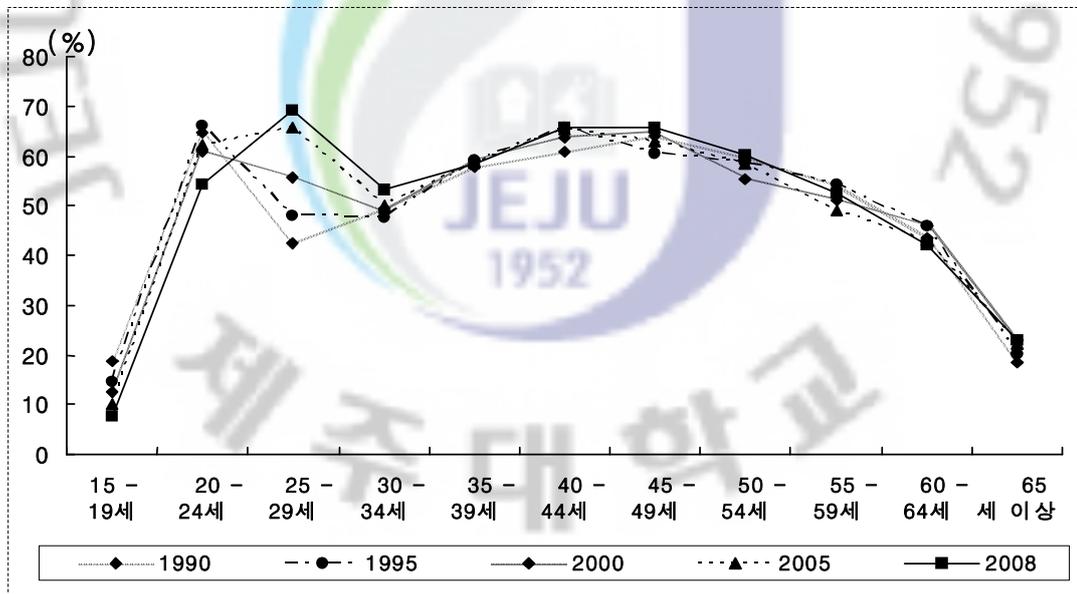
(단위 : 천명)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15세 이상 인구	전체	17,468	20,918	24,463	27,553	30,887	33,659	36,186	38,300	39,598
	남성	8,274	10,107	11,804	13,295	14,907	16,276	17,522	18,616	19,324
	여성	9,194	10,811	12,659	14,258	15,980	17,382	18,664	19,683	20,273
		52.5%	52.6%	51.7%	51.7%	51.7%	51.6%	51.6%	51.4%	51.2%
경제활동인구	전체	10,062	12,193	14,431	15,592	18,539	20,845	22,069	23,689	24,303
	남성	6,447	7,822	9,019	9,617	11,030	12,435	13,000	13,854	14,182
	여성	3,615	4,371	5,412	5,975	7,509	8,410	9,069	9,835	10,121
		34.3%	35.9%	35.8%	37.5%	38.3%	40.5%	40.3%	41.1%	41.6%

자료 : 통계청(2009),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http://www.kosis.kr>를 참조하여 재구성.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 77.9%에서 2008년 73.4%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 39.3%에서 1980년 42.8%, 1990년 47.0%, 2000년 48.6%, 2008년 49.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OECD 평균 60.8%에 비해서는 아직도 10.9% 정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 참가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이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동시장에서 퇴출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M자형 경력단절 곡선을 보이고 있다. 1990년의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42.6%로 1995년 47.9%, 2000년 55.7%, 2005년 65.9%, 2008년 69.1%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30-34세는 1990년 49.5%에서 1995년 47.6%로 25-29세보다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고 2000년 48.6%, 2005년 50.1%, 2008년 53.1%로 매년 2-3%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말하자면 연령별 M자형 경력단절 곡선 저점이 25-29세에서 30-34세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료 : 통계청(2009),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http://www.kosis.kr>를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8년 10,134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

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줄고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비경제활동사유는 가사와 육아 비중이 약 67%에 이르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의사가 있는 여성은 2004년 217천명(55.9%)에서 2007년에는 178천명(48.7%)으로 감소하고 있다(노동부, 2008: 11-19).

이러한 통계지표들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무엇보다도 사회적 편견 등 기타 요인보다는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인 출산과 육아부담 사유가 결정적인 요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sup>3)</sup>.

<표 2> 성별 비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전 체	42.4%	41.7%	41.0%	43.34	40.0%	38.1%	39.0%	38.1%	38.6%
남 성	22.1%	22.6%	23.6%	27.7%	26.0%	23.6%	25.8%	25.6%	26.6%
여 성	60.7%	59.6%	57.2%	58.1%	53.0%	51.6%	51.4%	50.0%	50.1%

자료 : 통계청(2009),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http://www.kosis.kr>를 참조하여 재구성.

한편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전국 수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 57.0%에서 1995년 57.5%, 2000년 60.7%, 2005년 63.7%로서 매년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63.5%로 하락하였으며, 2007년 63.3%, 2008년 61.0%로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다.

제주지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45-49세가 67.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40-44세(65.7%), 25-29세(65.3%), 50-54세(64.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 연령대는 15-19세로 3.2%이며, 60세 이상은 39.9%, 20-24세는 54.3%, 30-34세는 58.7%로 나타났다. 전국에 비해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에 따라 M자형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연령적으로 고르게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가 경향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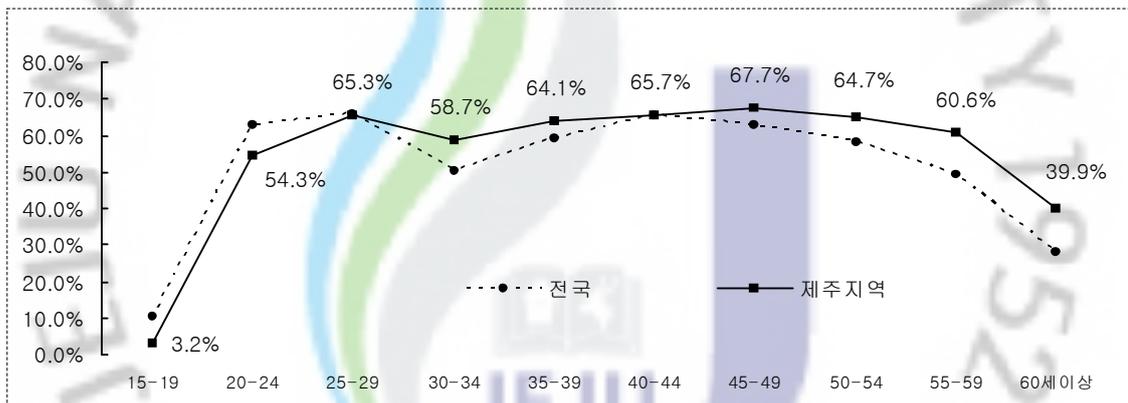
3) 1998년 여성취업 장애요인은 육아부담(29.3%), 사회적 편견과 관행(28.2%), 불평등한 근로여건(12.5%), 능력부족(14.3%)였으나 2006년 여성취업 장애요인은 육아부담(45.9%), 사회적 편견과 관행(18.5%), 불평등한 근로여건(11.6%), 능력부족(5.9%)로 육아부담에 대한 의견이 급속히 증가하였다(노동부, 2008: 12).

<표 3> 제주지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체	65.4%	66.0%	67.8%	70.0%	70.0%	69.2%	68.8%
남성	74.7%	75.7%	75.5%	76.9%	77.0%	75.5%	77.2%
여성	57.0%	57.5%	60.7%	63.7%	63.5%	63.3%	61.0%
전국 여성	47.0%	48.4%	48.6%	50.0%	50.3%	50.2%	49.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2006), 「2006 제주여성통계」, pp. 196 ; 통계청(2009),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http://www.kosis.kr).

이러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2006), 「2006 제주여성통계」, p. 196 ; 노동부(2008), 「2008 노동백서」, p. 430 참조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림 2] 2006년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2005년 현재 제주지역은 자영업주가 25.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시직 22.2%, 상용직 19.3%, 무급가족 종사자 17.0%, 일용직 15.6%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하면 2005년 현재 제주지역의 여성은 전국에 비해 자영업주가 7%, 무급가족 종사자는 3%, 일용직은 4.3% 더 높은 반면, 상용직은 6.3%, 임시직은 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지역의 여성들은 임금을 받는 상용직과 임시직보다는 자

영업이나 무급가족 종사자가 많으며 임금직에서는 일용직이 전국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과 직업적 분포에서 기인한다.

<표 4> 제주지역 여성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 추이

(단위 : %)

년도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2000	21.6	19.2	22.4	19.3	14.4	19.1	27.2	28.5	14.4	13.9
2003	22.5	17.8	20.2	16.7	15.5	23.2	27.1	31.0	14.7	11.4
2004	25.4	18.6	17.7	14.8	16.9	24.4	24.6	30.6	15.4	11.5
2005	25.9	19.0	17.0	14.0	19.3	25.6	22.2	30.2	15.6	11.3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2006), 「2006 제주여성통계」, p. 206; 노동부(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2008-2012」, p.13을 참조하여 재구성.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 자신의 노력 뿐 아니라 여성의 취업의식과 직업적 능력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여성 직업교육의 개념과 정의

직업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매일, 매주,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와 명확한 주기를 갖지 않더라도 계속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 보수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상관없이 종사하는 일을 의미한다(김선미, 2001).

개인이 갖고 있는 직업은 경제적 소득의 원천이 되므로 생계유지의 수단을 제공해주며, 정서적인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척도가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직업교육은 일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 그리고 이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김혜영, 2005: 9)으로, 직업훈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훈련은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 특정한 일을 숙련되게 하는 학습이고, 교육은 훈련의 개념이 지니고 있는 것 외에 고등 정신기능을 개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즉, 직업훈련에서는 개인이 직업에 맞도록 양성되지만, 직업교육에서는 개인의 복지에 주된 관심을 두고 교육의 목적도 개인이 자기생애를 개발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유혜경, 2005:10).

직업교육훈련(va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은 개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고, 또 직업적 경쟁력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과거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업계 고등학교(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라고 국한하여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학교를 졸업한 모든 성인과 근로자·실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그 개념도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개념<sup>4)</sup>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심인선, 2007 : 9).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vacational education)은 개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흥미·능력·신체적 특성·가치관 등에 맞는 일을 선택하여 그 일에 필요한 지식·기능 태도·이행·판단력 등을 개발하는 교육(심인선, 2007: 10)을 말하며, Hommonds(1968)는 어떤 종류의 일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또는 현재의 위치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훈련이라고 정의하였다(홍유선, 2001: 14; 백영의, 2006: 16 재인용).

이처럼 직업교육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sation, ILO)의 직업훈련권고 제2조에서는 “직업지도 및 직업교육이란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위해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여러 형태의 교육과 관련하여 개인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근무조건과 사회

4)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직업구조 변화·사회구조 변화·세계화 등 사회적 동인으로 인하여 이미 직업을 가진 성인이 직업 변화와 작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기업은 세계시장의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변화와 학습을 요구하고 있어, 과거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면 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었던 것과는 달리, 평생에 걸쳐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김종서 외, 2000).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UNESCO, ILO, 1984).

인간은 일생동안 형식교육(학교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사회교육)을 통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과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직무능력을 배워나간다. 개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 신체적 특성, 가치관 등에 맞는 일을 선택하여 그 일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이해, 판단력 및 일에 대한 습관들을 개발하거나 또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을 개선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이를 현장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직업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이무근, 2003: 35).

이러한 직업교육을 통하여 개인은 직업 능력을 갖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능 등을 습득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산업구조 개편이 급격히 진행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필요한 인력수요를 제공함에 있어 학교 교육이 충당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에 있어 정규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회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이라 할 수 있다(이민석, 1992; 유혜경, 2005: 9).

「여성발전기본법」에서의 여성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이며 여기에서 제공하는 직업관련 프로그램은 현재 직업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003년 이전까지 직업과 관련된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술교육, 교육훈련, 직업교육 등 운영주체별로 용어사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점차 교육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관점으로 훈련이라는 용어 대신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2003년부터는 직업교육으로 통칭하고 있다(백영의, 2007: 15).

본 연구에서의 여성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를 두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과는 달리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법으로 하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3) 여성 직업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 (1) 직업교육의 목적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직업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어느 특정한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있고, 일반교육은 특정한 직업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즉, 경제적 보수가 수반되어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는 일이라면 이는 직업이고, 이를 위한 교육은 바로 직업교육이 되는 것이다(곽덕원, 2000; 김혜영, 2005: 10).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무근(2003)은 국가나 산업발전 정도 또는 학자나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첫째, 직업에 관한 교육, 교육적 기초능력을 길러 일상생활 특히, 의식주 생활에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기르고, 여러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며, 둘째, 개인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시키고, 셋째,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존중, 인간우선의 사상이 반영되어야 하고, 어느 특정시기에 완결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계획 추진되어야 하며, 어느 특정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술습득에서 벗어나 자기완성의 차원에서 인간교육의 일부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정우현·구병림·이무근, 1989: 45).

#### (2) 여성 직업교육의 필요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작용하였다. 우선 여성의 취업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적인 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웠던 사업장이 전산화되면서 근력보다는 지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는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산업구조가 지식집약화, 경제의 서비스화, 국제화 진전에 따르면서 보건·의료, 교육, 사업서비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

에서의 여성고용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노동부, 2008: 20).

또한 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변화한 것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한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 이상 특수한 여성만의 역할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 고유 활동영역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한편 여성 개개인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여성들은 결혼에 의해 주부역할을 선택하기 보다는 직업에 의한 커리어우먼에 역할을 선택하려고 한다.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과 같이 전 생애 걸쳐 직업활동을 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 자신의 사회분야와 영역에서 여성의 직업적 성취동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이차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가계소득이 충분할수록,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은 불필요하거나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다 높은 생활수준에 대한 욕망은 여성적 책임이 높게 요구되는 생활주기단계에서 조차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Hoffman, 1974; Moen, 1985; 김혜연·김순미, 1998: 66 재인용).

이상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은 양과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여전히 이차노동자의 성격을 가지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특히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 스스로 경쟁력이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학습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취업경력과 자격증 소유 여부 등에 영향을 주는 자격증 취득을 뒷받침하거나 여성의 전문직 입직을 촉진하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채창균 등, 2001).

### (3) 직업교육의 역할과 기능

직업교육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 및 경제 사회적 측면, 기업과 노동자의 측면, 직업교육기관의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경제 사회적 측면으로 직업교육에 대해서 김선미(2001)는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필요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무기능 유희노동력을 기능 인력화하여 취업시킴으로써 고용과 실업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직업교육을 통하여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기능을 습득시켜 사회에 진출케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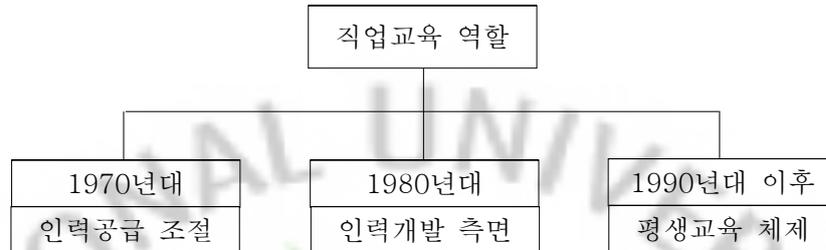
둘째, 기업과 근로자의 측면으로 직업교육에 대해서 강미나(2002)는 교육대상자들에게 사회교육 또는 생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생의 보람과 직업에 있어서의 성취감 그리고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과 자기개발 의욕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혁신과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교육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 공급하여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촉매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셋째, 직업교육기관의 측면으로 직업교육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며, 사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이들에게 계층상승의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정규 교육이 장기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데 비하여, 직업훈련은 단기적 상황변화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력 배출에 대한 조절기능을 수행한다. 직업교육에 대해서 서영주(2007)는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전직 훈련과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훈련시설 등 학교교육과 기업체간의 교량 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갖는 직업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성격과 역할이 변화되어 왔다.

아래 [그림 3]과 같이 1970년대의 직업교육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이에 비해 1980년대에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위한 인력개발 측면에 주력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그 역할이 변화되었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남영란(2001)은 평생교육 체제로의 전환은 1987년 6.29선언 이후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난 자율화와 민주화의 현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변화가 빠른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직업교육의 역할과 평생교육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료 : 남영란(2001),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림 3] 직업교육의 역할 변화

## 2. 여성 직업교육 실태 및 현황

여성 직업교육 실태 및 현황을 선진국과 우리나라 및 제주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외국의 여성 직업교육 실태 및 현황

일본과 더불어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여성 직업교육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일본의 여성 직업교육

##### ① 일하는 부인의 집

일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어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일하는 집은 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상담, 필요한 지원 및 복지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시설로서 우리나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벤치마킹이 되었다.

일부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도 하지만 설립과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1999년 말 전국에 224개의 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지방중소도시에 설립되는데 (동경 1개소), 설립 비용의 약 7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외 예산, 인사 등 모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조직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회관에 상응하는 사업 추진체제로 볼 수 있겠다. 일하는 부인의 집의 주요 사업형태는 첫째, 강습회, 세미나, 전시, 행사 등의 회합, 둘째, 상담 및 지도, 셋째, 탁아, 넷째, 자주그룹(직업 혹은 친목동아리)활동의 지원이다.

사업내용을 분류해보면 첫째, 기능, 자격습득 강좌 등의 직업에 관한 사업, 둘째, 가정과 직업의 조화에 관한 사업(주로 강습회), 셋째,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사업(주로 강습회), 넷째, 여성근로자의 생활전반에 관한 사업(주로 강습회), 다섯째, 취미, 스포츠 등 교양에 관한 사업(주로 강습회), 여섯째, 여성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탁아, 강습회), 일곱째, 상담업무, 마지막으로 기업방문, 도서대출 등의 기타 업무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에 관한 사업 중 기능, 자격습득강좌는 교육훈련 자체가 아니라 직업과 자격제도에 대한 안내가 대부분이므로,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주1-2회, 3-4시간 정도의 강습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었다. 즉, 일하는 부인의 집은 전문적 교육훈련기관이 아니라 여성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② 21세기 직업재단

1986년 노동대신의 허가로 공익법인형태의 재단법인 여성 직업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는 1993년 재단법인 21세기 직업재단으로 개칭하여 2000년 기준 47개의 지방사무소를 가진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설립주체는 민간 대기업이지만, 전체 운영예산의 98% (교부금 68%, 사업위탁비 30%)를 노동성에서 지원받고 있어 우리나라의 공단과 유사한 사업추진 및 운영체계라 할 수 있다.

21세기 직업재단은 일본 노동성여성국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은 여성의

능력발휘촉진사업, 직업과 가사의 양립지원사업, 단시간 노동지원사업이다. 여성능력발휘촉진사업의 주요 내용은 여성능력개발세미나, 업종별 사용자회의 개최,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강습 등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와는 사업추진체제나 사업내용이 크게 다르다(정미희, 2004).

### ③ 국립여성교육회관 및 생애학습센터

국립여성교육회관(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은 여성교육진흥을 위해 여성교육지도자와 그 외의 여성교육관계자들을 위한 연수 및 여성교육에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문부성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 결과 여성이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생애학습시설에서 자발적인 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자 연수,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교육기회의 제공,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센터의 개설, 여성교육과 가정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받는 현단위에 한 개씩 운영되는 생애학습센터는 일반적인 주부 사회교육강좌와 재취업강좌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①건강의학과 문학·역사·인간탐구·법률 등으로 구성된 교양코스와, ②환경·스포츠·레크리에이션·실용영어회화·컴퓨터로 구성된 특별코사이외에 ③1996년 남녀공동기본법 발표이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를 위해 리커런트 코스(recurrent course)를 운영하여 출산 육아로 익히지 못한 비즈니스 매너와 비즈니스컴퓨터 비즈니스 영어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 (2) 미국의 여성 직업교육

### ① New Chance Program

미국은 미혼모를 포함한 저소득층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책임과 직업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건강교육과 가족생활상담을 포괄 교육하였다. 노동성과 포드재단을 비롯한 28개 재단과 기관이 기금을 후원하였다.

프로그램의 모델은 비영리 중립조직체인 MDRC(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가 담당하였으며 California San Jose를 포함해서 16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16-22세로 19세 이하에 초산을 경험한 여성으로서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수혜자이고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GED(General Equivalency Diploma)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 등록 당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 대상이다.

프로그램 후원자로는 지역서비스 조직과 학교가 주로 포함되고 지역단과대학, 군청에서 관할하는 가족서비스센터, 학교와 직업단체 협의체, 사기업위원회 등이 참가했고,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다음 두 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시행하였다.

제1단계 프로그램은 ①취업준비요소: 성인기초교육과 GED준비 경력탐사, 취업전 기술훈련, ②개인적인 발달과 아동발달을 향상시키는 요소: 생활기술과 기회에 관한 커리큘럼, 건강교육과 건강관리서비스, 가족계획, 성인 생존기술훈련, 부모교육, 소아 건강서비스이며 제2단계 프로그램은 ①취업준비요소: 직업기술훈련, 근로인턴십, 직무배치보조 ②사례별 관리 ③아동보육 New Chance Program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강조점은 가족계획·건강교육·성인교육·직업능력교육·생활기술·개인발달과 부모교육 등 각 프로그램들의 메시지와 여러 가지 기술의 요소들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서비스구조는 프로그램 활동들을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18개월에 이르는 장기교육을 실시하여, 고강도의 현장교육서비스전달체계로 운영되었다. 노동시장의 관행을 비롯하여 빈곤을 양산하는 제반 사회적 요건이 병행하여 변화하지 않아 그 효과가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New Chance Program은 실질적으로 교육적 성취와 훌륭한 아동 양육의 활용, 부모역할 기술향상, 반복임신의 효과적인 감소를 가져왔다.

## ② 저소득층 주부의 교육지원

저소득층 학생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는 미국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들 수 있다. 저소득층 혹은 복지 수혜 대상 주부는 이 기금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한 소득향상을 얻게 된다.

이 기금의 효과를 낮추는 저해요인으로는 직업·교육·학교·요구간 갈등, 교육으로 인한 상실된 소득과 불충분한 재정보조, 가족이나 공동체의 지원 부족, 교육의 수혜에 대한 지식부족,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투자, 아동양육과 교통수단 등 지원서비스 부절 등이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지역당국과 지역사회 대학들이 이러한 저해요인을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TANF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중등과정 이후 교육 참여지원을 위한 자원사용, 효과적인 조직적 구조와 파트너 쉽을 발전, 취업중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을 재 디자인, 대학이나 지역당국이 야간과 주말에 탁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탁아와 연계, 일 때문에 수업에 간헐적으로 밖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수용, 기타 주거와 상담 등도 제공, 재정지원의 옵션을 개선, 동기를 향상시키고 교육과정에서 성공하도록 지원, 훈련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경력진보를 촉진하는데 고용주를 관련,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함 등이다(구명숙, 2005).

### (3) 호주의 여성 직업교육

#### ① 애들레이드 여성지역센터(Women's Community Center, SA)

이 기관은 YWCA와 같은 단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 9시 30분부터 3시까지 주로 여성과 관련된 정보를 여성들을 상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성폭력 관련 서비스, 여성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여성을 위한 성인교육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률상담도 직접 해주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률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개만 해주고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외에 요가, 상담, 자연요법, 마사지, 생리반사학과 같은 사회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많은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포함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관련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이들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여성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억압받아 온 그룹의 하나로 인식한다. 따라서 센터는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여성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페미니스트적 관점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관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센터의 대상그룹은 가족 돌보기에 관한 책임, 신체장애, 언어 및 문화적 장벽, 실업,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 충격, 질병, 가정재해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여성들이다.

주요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걷기, 상담, 글쓰기, 건강한 생활, 기초영어회화, 가정 내 폭력 대응법, 창조력 개발, 이혼 및 사별 후 생활, 조세관련법, 요가, 인도요리, 자연요법, 발 관리 마사지 등이다.

## ② 브리즈번 여성정보센터(Women's Infolink Brisbane)

브리즈번 여성정보센터는 퀸즈랜드 주의 지역연대국(Community Engagement Division)내의 여성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종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이 센터의 직원은 모두 공무원으로 브리즈번의 경우 6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이 센터의 대상그룹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주 전체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정보센터의 성과는 퀸즈랜드 주 여성의 권리 및 선택의 제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증진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센터에 대한 참여자 수의 증가를 성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성정보센터는 주로 여성관련 정보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의 안전과정의 추구, 경제적 안정 추구, 리더십과 의사결정의 증진, 건강과 복지 추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제공은 무료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얻을 수 있으며, 모두 무료이다. 고용에 관한 정보제공은 인터넷이나 원격교육훈련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단, 교육훈련이 필요한 여성에게는 인근의 지역교육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하여 교육훈련을 수강하게 된 수강생은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수업료를 내야하는 데 학습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정부가 수업료를 감면 또는 유예시키는 재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가로서 이 센터의 경우에도 일반 행정서비스에 적용되는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받고 있어서 주의 여성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성과분석도 받고 있다(이경원, 2006: 11-12).

## (4) 네덜란드의 여성 직업교육

네덜란드의 여성 직업학교는 네덜란드 최대의 노동조합 연합회의 회원단체인 여성연합의 주도하에 있으며, 연령 25세 이상의 저학력 여성으로서 미취업자 또는 중단 후

복직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학교의 목표는 25세 이상의 미숙련·반숙련 여성의 교육훈련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학교에서 개설하는 강좌가 주로 전통적인 남성들의 직업, 특히 정보학과 경영학 등이라는 것이다. 이는 직업세계에 더 이상 성별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구체적인 교육훈련과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과정은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는 교과를 목표 집단에 맞게 조정하여 훈련하며, 시간제로 운영하되 그 시간표는 학령기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 맞추어 편성된다. 과정은 대다수가 정보기술에 관한 것인데 교육기간은 1-2년을 넘지 않는다. 9개의 직업학교는 연간 거의 천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이 중 6개 직업학교는 전적으로 지역고용촉진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나머지 3개 학교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받는다.

유럽사회기금에서도 여성 직업학교의 예산에 출자한다. 이들 직업학교의 성과는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중도탈락률은 불과 10%이내이며 평균 70-80%가 취업하거나 계속 훈련에 진학한다. 외국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평균 22%에 달한다. 1987년 이후 여성 직업훈련을 통상적인 직업훈련 및 교육기관 속에 통합하는 것이 목표로 추구되었다. 또한 직업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축소한다는 정책의도를 가진 교육 외에도 이 학교에서는 여성의 취업알선은 물론 여성의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고용위원회, 교육과학부, 여성 직업전문학교 3자간에 맺어진 범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킹이 노동행정 조직의 주요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이경원, 2006: 13-14).

## 2) 우리나라의 여성 직업교육 실태 및 현황

### (1) 여성 직업교육 관련 정책

노동부(2007)에서 발간된 '여성과 취업' 보고서에 기재된 여성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을 재직여성근로자 직업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주부 단기적응 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재직여성근로자 직업훈련

정보기술의 급격한 확산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여성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인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2005. 7. 31)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절차 등 변경으로 최소훈련시간을 3일 20시간에서 2일 16시간으로 완화하였으며 근로자 수당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비정규직 근로자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1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요건을 완화하여 육아 및 가사부담으로 훈련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여성들의 훈련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재직자 훈련은 291만명이 지원하였고 이 가운데 여성 지원자는 전체의 24.0%인 70만명이었다.

### ② 실업자 직업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 신규실업자 훈련, 고용촉진훈련, 우선직종훈련, 자활직업훈련, 새터민훈련, 영세자영업자 훈련 등으로 이루어진 실업자 직업훈련은 2006년에 총 104,169명이 지원하였고 2007년 9월 현재 수료자는 76,166명이며 취업자는 59,621명(67.7%)이다. 여성가장훈련, 우선직종훈련을 제외한 훈련인원 81,573명 중 여성이 51,091명(62.6%)이며 성별 구분 없이 실시하는 일반적인 실업자 직업훈련과 별도로 주부, 여성 가장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직업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 ③ 주부 단기적응훈련

1999년부터 취업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주부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단순서비스 및 틈새 직종 등 고용수요가 있는 직종을 선정하여 YWCA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1-4주 과정의 단기 적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훈련을 수료한 주부에 대해서는 훈련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함으로써 주부의 직업능력 향상은 물론 취업 촉진에도 모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영유아생활지도원과 의류수선원, 문화재 해설사 등 주부 취업유망직종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총 5,076명이 훈련을 수료하고 이 가운데 90.6%인 4,600명이 취업하였다.

#### ④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1998년부터 저학력, 무기능으로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 부담으로 정규 취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여성가장 실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전문 취업훈련기관에서 취업·창업이 용이한 베이시터나 텔레마케터, 한식 조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1년 이내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훈련기간이 3개월 이하였기 때문에 단순 직종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져 장기적인 직업능력 개발 및 자활능력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2002년부터 훈련기간을 1년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전문직 훈련을 포함하는 등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과정은 훈련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훈련수당으로 교통비와 식비가 지급되고 재산세 5만원 이하인 훈련생에게는 가계보조금, 가족수당 등이 지급된다.

#### (2) 우리나라의 여성 직업교육기관 현황

##### ① 여성인력개발센터

가. 설립배경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신인 ‘일하는 여성의 집’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보조금의예 산뜻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인 민간여성단체를 운영주체로 하여 1993년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훈련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과 장비의 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법률에 따라 ‘일하는여성의집설립·운영및국고보조금지침’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비

영리법인으로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 설치되었으며 노동부장관이 이 기관을 관장하도록 규정되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의 당초 설립목적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첫째, 1-6개월 정도의 단기 직업능력개발, 둘째, 취업정보·취업알선, 셋째, 근로여성 고충상담, 넷째, 훈련수강생 자녀를 위한 복지후생시설 운영, 다섯째, 사회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 기타 복지증진 사업이었다.

노동부는 1993년 3곳의 ‘일하는 여성의 집’ 지원을 시작으로 2001년 관할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기까지 전국적으로 46개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였다. 1996년까지 매년 3개소씩 설립되었다가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 5개소, 1998년 18개소, 1999년 9개소 등 설립이 급증하였다. 이는 근로여성의 계속취업과 기혼여성의 신규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산업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증대되는 여성의 경제활동욕구를 충족시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원래의 설립취지에다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여성실업자, 특히 여성 가장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정책목표가 추가되었기 때문이었다.

2001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가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4월의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의 법적근거가 정비되었고, 사무 중 일부가 16개 시·도에 기관위임 되었다. 5월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설립·운영규칙’이 여성부훈령으로 제정되어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한편, 현재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여성부, 2001: 21).

#### 나. 법적근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민간 여성단체를 사업주체로 하되 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여성부장관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

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고충상담,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7조에는 “경비보조에 관한 업무 중 당해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과거 노동부의 업무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업무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왔다. 우선 여성부장관은 설립·운영기준의 설정, 설립지역 및 설립운영주체의 선정, 예산의 확보 및 시·도배정, 운영 실적검사 및 차등지원을 수행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및 교부결정과 같은 사항 등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여 있다(여성부, 2001: 25).

현재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은 여성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신규설립 시 설립비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보조하고, 연간 운영비 중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신규설립 시 건물임차료로 약 7억 원에서 10억 원을 지원하며, 센터별 연간 총 운영비 중 약 30%정도가 국고로 지원되고 있다. 2004년 상반기 기준으로 운영비 국비지원 규모는 센터별 평균 연간 14,500만원 원 정도이다(고혜원 외, 2004: 37).

#### 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현황

현재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5년 강남센터가 폐지되어 2008년 현재 총 5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14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7개소, 부산 4개소, 인천과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이 각각 3개소, 제주지역은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운영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인구 다수거주지역, 사업체 등 여성인력수요가 많은 지역,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립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 설립토록 되어 있다. 동규칙 제8조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유

지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과 여성의 직업교육, 여성의 사회교육에 관한 실적이 나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20개인데, 이 가운데 대한 YWCA 연합회 후원회가 25개소로 제주지역이 해당된다.

<표 5> 2008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시·도별 분포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수	14	4	2	3	2	1	1	7	2	1	3	2	3	3	3	1	52

자료 :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www.vocation.or.kr>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3년 이래 지속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30-40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50-60대 중·고령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교육·보육·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유망직종으로의 여성인력 집중양성, 취업 및 창업 능력개발 등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특히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지역내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다(서영주, 2007: 25).

<표 6>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취업이 용이한 1-6개월 정도의 단기직업 교육을 위주로 교육·훈련 실시
취업정보제공	구인·구직 정보를 확보하여 직업교육 수료자 및 취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알선 또는 구직관련 상담실시
고충상담	여성이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을 통해 겪는 고충에 대한 상담과 조언
후생복지운영	수강생의 자녀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운영, 기타 휴게실, 식당, 유아 놀이방 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기타 여성의 문화 및 여성복지증진관련 사업	교양강좌 : 기초어학교육 및 가정과 직장생활이 슬기로운 병행을 위한 교육, 출산, 육아, 자녀교육, 질병예방 등의 교육 실시 취미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근로여성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료 :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운영 규칙.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여성의 직업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종합센터로서의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훈련생들에게 식당을 통해 실비로 중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현실적으로는 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여성의 자녀탁아와 놀이방 제공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② 여성회관

여성회관은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 등을 통해 지역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성회관의 설립근거는 각 시도의 조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인 경우 “여성발전센터 설치조례”를 두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두고 있다. 제주지역은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를 두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부운영조례”로 개정하였다.

여성회관의 경우는 특별한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르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사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적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여성회관은 2000년 이전에는 85개소로서 1990년대에 60개가 설립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54개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2008년 5월 현재 전국 139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체가 활성화되면서 여성회관 준립 필요성과 기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위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표 7> 전국 여성회관 분포 현황(2008년 5월 기준)

지역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수	139	8	2	5	3	1	1	29	15	13	14	11	12	14	10	1

자료 : 여성부.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1조에 나타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여성회관을 일반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이용시설과 여성사회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은 “여성의 능력개발,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여성복지증진”에 두고 있다. 여성복지기능과 여성사회교육기능이 균형있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기능을 갖는 사업으로는 상담사업, 여성자원활동센터 사업, 취업안내사업, 보육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교육기능을 갖는 사업으로는 기술 및 기능교육, 취미·교양교육, 사회의식교육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채창균·고혜원, 2001: 15-20).

### (3) 우리나라 여성 직업교육기관의 특징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여성전용교육기관이며, 여성회관(제주여성능력개발부)은 복지기능 사업과 사회교육기능 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어 있다.

이 2개의 기관의 공통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장서영, 2008: 45-46)

첫째는 저학력과 저임금 중심의 취업과정 중심이라는 점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여성 직업교육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고학력에 적합한 교육제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주로 저학력 중심의 훈련과 취업을 제공하며 주 훈련분야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일자리 취업과정으로서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학력과 취업요구에 맞는 취업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박성정, 2005: 15-19).

둘째는 직업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중심이라는 점이다.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취업설계→직업교육→취업알선→사후관리의 체계적인 직업교육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직업교육은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사실상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 여성의 모집·선발과정에서부터 기초상담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적성에 맞는 교육직종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시 상담을 통해 취업의지 점검, 직업설계 지원, 구직기술 등 취업준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수료 후 사후관리 및 적극

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황수경, 2006). 또한 여성은 취업욕구는 높으나 적극적인 직업관이 부족하다. 따라서 직업의식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간의 병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셋째는 한정된 취업분야로 인한 유사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직업교육은 그 내용이 특정분야로 한정되어 있고(박성정 외, 2005), 대부분 여성취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여성들의 다양한 취업분야를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분야 발굴에 있어서 지역인력수요에 기초하여야 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원하는 여성의 욕구가 높음에 따라 파트타임 또는 프리랜서형 취업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황수경, 2006).

마지막으로는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알선의 한계이다. 여성취업지원기관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생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취업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채창균·고혜원, 2001; 황수경, 2006). 따라서 취업처 발굴을 위해서 지역의 수요를 조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고용지원센터와의 연계 등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여성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취업지원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후관리는 전화나 서신을 통한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에 불과하다(채창균·고혜원, 2001).

### 3) 제주지역 여성 직업교육 실태 및 현황

#### (1)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8년에 '제주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개관하여 제1기 취업관련 전문교육생 97명이 수료하고 이 가운데 39명이 취업하였다. 이후 노동부위탁 여성가장실업자 훈련기관 지정 취업훈련, 제주시위탁 고용촉진훈련, 정보통신부지원 정보화교육기관 지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주부·준고령자 단기적응훈련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표 8>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실적(2004-2007)

년도	과정 수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자 수	취업률
2007	33	1,088	652	60.0%
2006	30	861	469	61.6%
2005	29	603	383	63.5%
2004	26	920	539	58.6%

자료 : 여성부(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07) 2007년도 시행실적 및 2008년도 시행계획;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지방자치단체, 각년도

이후 2001년에 ‘일하는 여성의 집’이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개정하고 노동부 여성가장실직자훈련과 실업자 재취업훈련,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주부·준고령자 단기적응훈련, 제주시와 노동부의 위탁 업그레이트형 자활근로사업, 여성부의 전업주부 재취업프로그램과 중소기업지원 여성인력직업훈련, 여성발전기금사업 과정, 자활훈련 등 많은 직업교육을 수행하였다.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7년에 33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1,088명의 수강생이 수료를 했으며 이 가운데 652명이 취업하여 60.0%의 취업율을 보였다.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2008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총 7개 프로그램으로 이 가운데 취미여가 프로그램인 사회문화프로그램 7개 과정과 총 6개의 여성 직업관련 프로그램에서 27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6개의 여성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국비지원훈련 프로그램은 5개 과정으로 신생아, 베이비시터, 도배사, 실버시터, 커리어스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2주에서 4개월의 과정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다. 또한 전문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10개 과정으로 출장요리사, 파티플래너, 수학가베지도사, 웃음치료사, 펠트, 비즈공예, 풍선아트, 종이접기, 한식조리, 페이스페인팅 등 자격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2일에서 10주간의 과정으로 5만원에서 22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

직업능력기초향상 프로그램은 8개 과정으로 케이크, 면요리, 종이접기, 천연화장품, 비즈공예, 궁중요리, 가구DIY, 천연비누만들기 등 초급과정으로 4주의 일정이며, 3만원에서 8만원의 수강료가 소요된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은 2개 과정으로 사무자동화 실기와 엑셀 및 PPT 마스터 과정으로 4-6주간의 일정으로 수강료는 4만원이다.

<표 9>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직업프로그램(2008년)

구 분	프로그램	기간	수강료
국비지원훈련 (5개 과정)	산모와 신생아 돌보논이	2주	무료
	베이비시터	3개월	
	도배사	4개월	
	실버시터	3개월	
	커리어 스쿨	2주	
전문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10개 과정)	출장요리사 양성	6주	10만원
	파티플래너 양성	4주	12만원
	수학가베지도사	10주	8만원
	웃음치료사&레크레이션 자격증반	2일	22만원
	펠트 자격증반	12주	5만원(재료비 별도)
	비즈공예 자격증반	6주	10만원
	풍선아트 자격증반	5일	10만원
	종이접기 자격증반	6주	6만원
	한식조리기능사	4주	6만원
	페이스페인트 자격증반	5일	10만원
직업능력기초향상 프로그램 (8개 과정)	케이크만들기 초급	4주	8만원
	면요리만들기 초급	4주	6만원
	종이접기 초급	4주	3만원(재료비 별도)
	천연화장품 만들기 초급	4주	3만원(재료비 별도)
	비즈공예 초급	4주	3만원(재료비 별도)
	궁중요리 초급	4주	6만원
	가구DIY 초급	4주	4만원(재료비 별도)
	천연비누만들기 초급	4주	3만원(재료비 별도)
정보화교육 (2개 과정)	사무자동화 실기대비반	4주	4만원
	엑셀 & ppt 마스터 과정	6주	4만원

자료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www.jejuwoman.kr>

## (2) 제주 여성능력개발부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산하의 여성능력개발부의 설립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다. 이전의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를 2006년에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부'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를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교육과 교육수료자 사후관리, 여성관련 조사·연구사업,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보육사업, 강의실 시설대여 사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산하의 여성개발능력부로 변경되면서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자아개발 실현 및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운영·전문적인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에게 일의 즐거움 찾을 수 있는 배움의 기회제공, 평생교육 및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우선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모부자복지법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대상자이며 교육우선권 부여 및 교육수수료가 면제된다. 2순위는 이주여성,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입주자(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인력개발원 자원봉사자 (접수일 기준 96시간 이상 봉사한 자)이다.

여성전문 교육수수료 및 재료비 등 수수료는 월 10,000원으로 교재비 및 재료비 등은 본인부담이다. 2007년 여성능력개발부의 직업훈련 실적은 121개 과정으로 이 과정을 17,350명이 이용하였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여성능력개발부는 강의실(1, 2)과 어학실, 정보화 교육장, 의상교육장, 피부관리실, 미용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정보자료실, 보육실, 통신실, 자원봉사센터 등이 있다.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서귀포여성문화센터는 강의실(1, 2, 3, 4)과 조리실, 정보화교육장, 홈페이지실, 귀금속공예실이 있으며 노인회관과 여성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 대강당, 자원봉사활동센터 등이 있다.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부 현황

구 분	여성능력개발본부		서귀포여성문화센터		
위치	제주시 연동 313-40 부지 : 1,414㎡ 건물: 1동, 1,233.54㎡		서귀포시서귀동321-10 부지 : 2,399.16㎡ 건물 : 1동, 2,490.98㎡		
시설	1층	사무실, 정보자료실, 피부관리실, 미용실습실, 보육실, 통신실, 자원봉사센터	475.50㎡	사무실, 노인회관, 여성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 대강당, 자원봉사활동센터	1,004.55㎡
	2층	제2강의실, 어학실, 제1강의실, 사무실	462㎡	조리실, 강의실(1,2,3, 4), 정보화교육장, 홈페이지실	607.37㎡
	3층	정보화 교육장, 의상 교육장	167.04㎡		
	지하	지하층 변전실, 창고	129㎡	지하층 기계실, 전기실, 체육실, 귀금속공예실	879.0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edu.jeju.kr>

<표 11> 여성능력개발부의 직업훈련실적(2004-2007)

년도	과정 수	수료자 수
2007	121	17,350
2006	64	43,03
2005	71	4,940
2004	66	4,908

자료 : 여성부(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07) 2007년도 시행실적 및 2008년도 시행계획;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지방자치단체, 각년도

제주시에 위치한 여성능력개발부의 본부에는 의식향상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총 7개분야 67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여성 직업프로그램과 관계있는 과정은 전문강사 양성교육 5개 과정과 전문기술교육 20개 과정, IT전문인력양성교육 12개 과정 등이다. 전문기술교육에는 자격증 대비반과 취업 및 창업교실, 기술교육 부문으로 나뉘고 IT전문인력양성교육은 자격증 대비반과 능력향상반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웃음치료사, 균형운동지도사, 친절매너강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어린이키성장교육사, 까오싱 차이나 지도사 등 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전문기술교육 가운데 자격증 대비반은 고전머리사, 소비자 전문상담사, 화훼기능사, 피부미용기능사, 헤어미용기능사, 공인중개사, 부동산재테크 등 9개 과정이며, 취업 및 창업교실은 헤어미용, 피부미용, 천연화장품과 비누제작, 옷수선, 논술지도 등 5개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생활한복, 수의제작, 현대의상, 홈패션 등 6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IT전문인력양성교육 가운데 자격증 대비반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6개의 자격증 대비반이 운영되고 있고, 능력향상반은 홈페이지 제작,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웹디자이너 등 6개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는 5개 분야 53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기술직업강좌(2개강좌), 외국어 (4개 강좌), 생활문화(4개 강좌), 정보화강좌(4개강좌) 등 직장인 및 농업인을 위한 야간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전문 강좌, 교육생 자녀에 대한 일시 수탁보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술직업강좌는 피부미용사와 제빵조리기능사 과정이며, 생활문화과정은 귀금속공예와 한지공예, 어린이 독서논술, 북아트 등 4개의 과정이며, 정보화 학습은

컴퓨터 중급과 워드자격증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능력개발부의 여성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여성능력개발부의 여성 직업프로그램(2008년)

구 분	프로그램	기관	
전문강사 양성교육 (5개 과정)	웃음치료사 4차원 균형 운동지도사 친절매너강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양성 어린이키성장교육사 까오싱 차이나 지도사	여성능력개발부	
전문기술 교육	자격증 대비반 (9개 과정)		고전머리사 3급 소비자전문상담사이론 소비자전문상담사실기 화웨이론 화웨이실기 피부미용기능사 헤어미용기능사 공인증개사 부동산재테크
	취업 및 창업교실 (5개 과정)		헤어미용전문 피부미용전문 천연화장품과 비누제작 옷수선 논술지도과정
	기술교육 (6개 과정)		생활한복 생활한복전문 수의제작 현대의상 현대의상전문 홈패션
IT전문인 력 양성교육	자격증 대비반 (6개 과정)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한글(ITQ) 엑셀(ITQ) 파워포인트(ITQ)
	능력향상반 (6개 과정)		홈페이지제작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웹디자인 컴퓨터기초
기술직업강좌 (2개 과정)	피부미용사 제빵조리기능사	서귀포시여성문화 센터	
생활문화과정 (4개 과정)	귀금속공예 한지공예 어린이 독서논술 북아트		
정보화학습 (2개 과정)	컴퓨터 중급 워드자격증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edu.jeju.kr>

### 3. 이론적 배경

#### 1) 여성 직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여성 직업교육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시대적으로 초점이 달라 2000년 이전에는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여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여성취업정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여성의 집과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변도윤(2000)은 여성의 집과 여성회관을 비교 분석하면서 여성 직업훈련체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와 효율적인 직업훈련체계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어수봉 등(2000)은 일하는 ‘여성의 집’ 사업의 외부환경요인과 운영체계의 내부역량,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 직업능력개발센터라는 ‘일하는 여성의 집’ 비전을 정립하였다. 또한 김정희(2001)는 대구·경북지역의 일하는 여성의 집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고 교육프로그램 과목이 서비스직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시대의 요구에 맞는 기술 정보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직업의식 교육을 하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였다.

한편, 여성센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홍정욱(2007)은 지방자치단체 여성 직업교육기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체계 정비, 지역산업 및 사회의 인력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가정과 직장 양립을 위한 환경과 제도 개선,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향상, 교육기관 지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은경(2001)은 여성의 취업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성의 집에 관한 운영실태 분석 및 만족도를 연구하였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의 집의 운영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길상(2003)도 기존의 직업훈련이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이 상대적으로 단순 직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촉진과 고용안정 및 사회적 지위향상, 21세기 지식정보

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서의 여성 직업훈련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서 김태홍 등(2001)은 여성부의 여성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대학교수, 민간부분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직업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준고령 여성과 기혼여성 등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정미희(2004)는 취업희망 기혼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의 체제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여성 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취업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가정과 직장 양립을 위한 환경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백영의(2007)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을 연구하면서 준고령 여성들에게 맞는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교육 콘텐츠의 강화,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직업상담기능의 강화, 준고령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 2) 관련 변수 고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 중심으로 관련변수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백영의(2007)는 준고령 여성들이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한 동기가 여가선용과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직업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택동기는 40-50대와 고졸이상 학력자, 기혼자, 그리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채창균·고혜원(2001)은 자영 및 창업을 위해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38세 기혼자이면서 고졸이하의 학력자로 100-200만원 소득을 가진 수강생에 따라 선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자영이나 창업을 원하는 주된 이유는 자기향상과 생활향상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봉희(2002)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점 사항으로는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직업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하며 소자본 창업관련교육을 더 개설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30대 기혼자이면서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100-200만원 소득의 수강생에 따라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경원(2006)은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 고학력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장비 개선이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특히 25-34세 기혼자이면서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30-70만원 소득 수준에 따라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소수만이 이루어져왔는데 김선미(2000)는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40대 여성들은 취업과의 연계 부족에 대해 불만족하고, 특히 200만-300만원대 중간 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내용에 대한 한정된 과목이 주된 이유이며, 30대의 연령층과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봉희(2002)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연령, 학력, 소득,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20대 여성들이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비나 시설부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영주(2007) 연구에서도 불만족의 이유는 장비나 시설 부족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육시설 및 장비의 우수성, 강의수준의 향상과 교육기간과 시간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미나(2001)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실제 사업장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육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육훈련방식 개선과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교육훈련직종의 다양화 순으로 개선·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채창균·고혜원(2001)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지역노동시장에 부합하면서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유연성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훈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연령과 학력, 결혼상태, 소득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여성 수강생들의 참여실태와 함께 수강생들에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수강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직업교육기관인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의 여성능력개발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여성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제주지역의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들의 참여실태는 어떠한가?
2. 제주지역의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3.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수강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무엇인가?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참여실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교육 중 어려운 점, 교육 내용의 기대치, 직업교육기관의 요건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및 사후관리는 수료 후 계획과 수료 후 사후관리 등 총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사항은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과 발전방안 등으로 총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1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b>종속변수</b>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1=매우 불만 2=불만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b>독립변수</b>	
<b>가정관련 변수</b>	
연령	세
교육수준	1=고졸이하 2=전문대졸 3=대졸 이상
배우자 유무	1=있다 0=없다
배우자 연령	1=30대 이하 2=40대 3=50대 이상
배우자 직업	1=관리·전문직 2=사무·기술직 3=판매·서비스 4=자영업 5=기타 직업
거주지역	1=제주시 0=서귀포시
거주인 수	명
자녀 수	명
미취학 아동	1=있음 0=없음
주택 유형	1=단독주택 0=단독이외의 주택
주택 소유	1=자가소유 0=타인소유
생활수준	1=높다 0=낮다
소득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원)
<b>직업관련 변수</b>	
현재 직업 여부	1=현재 있다 2=과거에 있었다 3=취업경험 없다
현재 직업의 종류	1=관리·전문직 2=사무·기술직 3=판매·서비스 4=자영업 5=기타 직업
과거 직업의 종류	1=관리·전문직 2=사무·기술직 3=판매·서비스 4=자영업 5=기타 직업
퇴직기간	1=2년 이하 2=3-5년 3=6-9년 4=10년 이상
<b>직업교육프로그램 실태변수</b>	
교육참여 동기	1= 직업적 동기 0=개인적 동기
교육 수강시 어려운 점	1=경제적인 문제 2=교통 불편 3=육아문제 4=가사문제 5=수강생들의 수준 차이 6=학습능력 부족 7=자신감 부족 8=건강문제 9=가족의 이해 부족 10=시간부족 11=기 타
교육내용의 기대치	1=매우 불일치 2=불일치한 편 3=보통 4=일치한 편 5=매우 일치
직업교육기관의 요건	1=기초과정 교육 확대 2=준 높은 강의 3=교육 후 자격증 취득용이 4=수준별 교육프로그램 5=다양한 교육시간 배정 6=접근성 용이 7=전문자격증 교육프로그램 확대 8=현장 실무위주 교육 확대 9=창업관련 교육 확대 10=교육 후 사후관리 11=최신 교육시설 및 장비 12=육아보육시설 설치 13=교육비 및 재료비 인하 14=기 타
수료 후 계획	1=직업적 활용 2=개인적 활용 3=복합적 활용
수료 후 사후관리	1=관련분야 재교육 2=다른 교육프로그램 참여 도움 3=교육 관련 정보 제공 4=취업 알선 5=기 타 6=모르겠다
개선사항 발전방안	1=교육강사 개선 2=교육환경 개선 3=프로그램 개선 4=교육기관 개선 1=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방안 2=사회분야 여성 전문인 양성 3=일반 여성의 기초지식 습득 4=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 5=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6=취업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7=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8=기 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로 선행연구들(채창균·고혜원, 2001; 최봉희, 2002; 최경란, 2004; 이경원, 2006; 서영주, 2007)을 기초로 담당 강사, 교육환경,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관 각 각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한 총 1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점수를 통해 만족도를 산출하였다.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된 독립변수들은 수강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설명변수들로 그 특성에 따라 가정관련 변수, 직업관련 변수, 직업교육프로그램 실태변수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위 <표 13>과 같다.

가정관련 변수에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연령과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 등을 포함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수강생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과 직업, 학력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의 수와 미취학 아동여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 및 주택소유, 소득수준, 생활수준을 고려하였다.

직업관련 변수에는 현재의 직업여부를 파악한 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수강생은 현재의 직업과 취업형태를 포함하였고 과거에 직업이 있었던 수강생은 퇴직 이전의 직업과 취업형태, 퇴직 한 후의 기간을 포함하였다.

직업교육프로그램 실태 변수에는 교육참여 동기와 교육 수강시 어려운 점, 그리고 교육내용의 기대치, 여성 직업교육기관의 요건, 수료 후의 계획과 사후관리,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사항과 발전방안을 포함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강생들의 만족도 및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수강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직업교육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산하의 여성능력개발부와 서귀포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교육 수강생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08년 6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배포하여 28부를 제외한 422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된 설문지 25부를 제외하고 397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후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경향은 빈도, %,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수강생들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이에 차이를 가져오는 수강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분산분석(ANOVA)과 t-검정, 그리고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가정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 교육프로그램 실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관련 특성

제주지역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가정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30대 이하가 20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는 101명(25.4%), 50대 이상은 87명(21.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41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하가 148명으로 전체의 37.3%, 전문대 졸업 125명(31.5%), 대졸 이상은 124명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수강생이 전체의 82.4%인 327명이며, 배우자가 없는 수강생은 17.6%인 70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보면 제주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63.7%인 253명으로 나타났으며 36.3%인 144명은 서귀포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인 수를 보면 156명인 39.3%가 4인으로 나타났으며 21.2%인 84명은 5인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거주인은 3.6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녀 수는 261명인 65.7%가 2인, 20.7%인 82명은 없다, 13.6%인 54명은 1인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자녀 수는 1.6명으로 조사되었다.

미취학 아동 여부를 보면 35.0%인 139명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65.0%인 258명은 미취학 아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유형을 보면 39.8%인 158명은 단독주택, 60.2%인 239명은 아파트 등 단독이외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택소유를 보면 60.2%인 239명은 자가 소유, 나머지 158명(39.8%)은 타인 소유로 나타났다.

<표 14> 조사자의 가정관련 특성

가정관련 특성		본인			배우자		
		빈도 (명)	비율 (%)	평균	빈도 (명)	비율 (%)	평균
연령	30대 이하	209	52.6	41.0세	121	37.0	44.3세
	40대	101	25.4		117	35.8	
	50대 이상	87	21.9		89	27.2	
교육 수준	고졸이하	148	37.3		100	30.6	
	전문대졸	125	31.5		77	23.5	
	대졸 이상	124	31.2		150	45.9	
배우자 직업	관리·전문·기술직				75	22.9	
	사무·공무원				112	34.3	
	판매·서비스·자영업				98	30.0	
	무직/기타				42	12.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27	82.4				
	배우자 없음	70	17.6				
거주지역	제주시	253	63.7				
	서귀포시	144	36.3				
거주인수	1인	21	5.3	3.6명			
	2인	64	16.1				
	3인	72	18.1				
	4인	156	39.3				
	5인 이상	84	21.2				
자녀 수	없음	82	20.7	1.6명			
	1인	54	13.6				
	2인	261	65.7				
미취학 아동	있음	139	35.0				
	없음	258	65.0				
주택 유형	단독주택	158	39.8				
	단독이외 주택	239	60.2				
주택 소유	자가소유	239	60.2				
	타인소유	158	39.8				
생활 수준	낮다	95	23.9				
	높다	302	76.1				
소득 수준	150만원 이하	57	19.7	215만원			
	151-250만원	75	25.9				
	251-350만원	79	27.2				
	351만원 이상	79	27.2				
계		397	100.0		327	100.0	

주) 소득수준은 무응답 107명으로 인해 합계에서 차이가 있음.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302명인 76.1%가 좋다는 의견을 보였고 95명인 23.9%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전체 397명 응답자 가운데 107명이 응답을 거부하였고 290명 중 150만원 이하가 57명(19.7%), 151-250만원은 75명(25.9%), 251-350만원과 351만원 이상은 각각 79명(27.2%)으로 나타났으며<sup>5)</sup> 평균 소득은 215만원으로 산출되었다.

배우자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121명(37.0%), 40대 117명(35.8%), 50대 이상 89명(27.2%) 순으로 조사되어 평균 44.3세였고, 배우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이상이 150명으로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졸이하가 100명(30.6%), 전문대 졸 77명(23.5%)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직업을 보면 사무직과 공무원이 112명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직과 서비스직, 자영업이 98명(30.0%), 관리직 및 전문직, 기술직이 75명(22.9%), 기타 직업은 42명(12.8%)으로 조사되었다.

## 2) 직업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66.8%인 265명은 과거에 직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5.7%인 102명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7.6%인 30명은 취업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직업이 있는 수강생 102명 가운데 33.3%인 34명은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고, 28명인 27.5%는 관리·전문직, 22명인 21.6%는 사무·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265명 가운데 44.5%인 118명은 사무·기술직이었으며, 25.7%인 68명은 판매·서비스직, 13.6%인 36명은 관리·전문직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퇴직기간은 22.7%인 90명이 2년 이하, 13.1%인 52명은 3-5년, 31.0%인 123명은 6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5) 소득수준에 대해 무응답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수강생들은 소득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 하거나, 소득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수강생은 소득공개로 인해 직업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5> 조사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		빈도(명)	비율(%)
직업여부	현재 있다	102	25.7
	과거에 있었다	265	66.8
	취업경험 없다	30	7.6
계		397	100.0
현재 직업의 종류	관리·전문직	28	27.5
	사무·기술직	22	21.6
	판매·서비스	34	33.3
	자영업	12	11.8
	기타 직업	6	5.9
계		102	100.0
과거 직업의 종류	관리·전문직	36	13.6
	사무·기술직	118	44.5
	판매·서비스	68	25.7
	자영업	26	9.8
	기타 직업	17	6.4
퇴직기간	2년 이하	90	22.7
	3-5년	52	13.1
	6년 이상	123	31.0
계		265	100.0

## 2.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

### 1) 직업교육 참여동기와 수강시 어려운 점

여성 직업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29.5%인 117명이 ‘취업을 하기 위해’라고 응답하였으며 20.9%인 83명은 ‘여가 선용 및 취미생활’, 19.1%인 76명은 ‘지식 및 교양을 쌓기 위해’ 순으로 나타나 직업적 동기가 57.3%, 개인적 동기는 42.8%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성 직업교육 수강 시 어려운 점에 대해 17.4%인 69명은 ‘육아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16.4%인 65명은 ‘경제적인 문제’, 15.4%인 61명은 ‘교통불편’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여성 직업교육 참여동기

여성 직업교육 참여동기		빈도(명)	비율(%)
직업적 동기	취업하기 위해	117	29.5
	자격증 취득 위해	61	15.4
	직장을 옮기기 위해	7	1.8
	자영업 및 부업을 위해	42	10.6
	계	227	57.3
개인적 동기	지식 및 교양을 쌓기 위해	76	19.1
	여가 선용 및 취미생활	83	20.9
	사교적인 목적으로	2	0.5
	기타	9	2.3
	계	170	42.8
계		397	100.0

<표 17> 여성 직업교육 수강 시 어려운 점

여성 직업교육 수강 시 어려운 점	빈도(명)	비율(%)
경제적인 문제	65	16.4
교통 불편	61	15.4
육아문제	69	17.4
가사문제	11	2.8
수강생들의 수준 차이	8	2.0
학습능력 부족	11	2.8
자신감 부족	30	7.6
건강문제	11	2.8
가족의 이해 부족	2	0.5
시간부족	56	14.1
기 타	73	18.4
계	397	100.0

## 2) 직업교육프로그램 기대치와 교육기관 요건

여성 직업교육 수강내용이 기대했던 것과 일치한다는 의견에 대해 40.6%가 ‘일치한 편’, 21.2%는 ‘매우 일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불일치한다는 의견은 ‘매우 불일치’ 1.0%, ‘불일치한 편’ 3.0%로 낮게 나타났다.

<표 18>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기대치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기대치	빈도(명)	비율(%)
매우 불일치	4	1.0
불일치한 편	12	3.0
보통	136	34.3
일치한 편	161	40.6
매우 일치	84	21.2
계	397	100.0

여성 직업교육기관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항목에 대해 15.9%인 63명이 '전문자격증 교육프로그램 확대'라고 응답하였고, 15.4%인 61명은 '교육 후 사후관리', 10.6%인 42명은 '현장 실무위주 교육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여성 직업교육기관의 요건

여성 직업교육 기관의 요건	빈도(명)	비율(%)
기초과정 교육 확대	32	8.1
수준 높은 강의	19	4.8
교육 후 자격증 취득용이	34	8.6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34	8.6
다양한 교육시간 배정	35	8.8
접근성 용이	9	2.3
전문자격증 교육프로그램 확대	63	15.9
현장 실무위주 교육 확대	42	10.6
창업관련 교육 확대	12	3.0
교육 후 사후관리	61	15.4
최신 교육시설 및 장비 비치	21	5.3
육아보육시설 설치	11	2.8
교육비 및 재료비 인하	11	2.8
기 타	13	3.3
계	397	100.0

### 3)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과 사후관리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에 대해 30.7%인 122명은 '일상생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30.5%인 121명은 '취업', 13.9%인 55명은 '부업이나 자영업', 12.3%

인 49명은 ‘수료 후에 생각하겠다’ 순으로 나타나 직업적 활용은 52.7%, 개인적 활용은 30.7%, 복합적 활용은 16.6%로 나타났다.

<표 20>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여성 직업교육기관 수료 후 계획		빈도(명)	비율(%)
직업적 활용	취업	121	30.5
	부업이나 자영업	55	13.9
	다른 기술 습득	29	7.3
	직장을 이직	4	1.0
	계	209	52.7
개인적 활용	일상생활에 활용	122	30.7
복합적 활용	취업 후 진학	8	2.0
	바로 진학	2	0.5
	수료 후에 생각	49	12.3
	기 타	7	1.8
	계	66	16.6
계	계	397	100.0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직업교육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27.0%인 107명은 ‘취업 알선’으로 나타났고 25.7%인 102명은 ‘관련분야 재교육’, 19.4%인 77명은 ‘교육관련 정보 제공’, 17.4%인 69명은 ‘다른 교육프로그램 참여 도움’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수료 후 사후관리

수료 후 사후관리	빈도(명)	비율(%)
관련분야 재교육	102	25.7
다른 교육프로그램 참여 도움	69	17.4
교육 관련 정보 제공	77	19.4
취업 알선	107	27.0
기 타	27	6.8
모르겠다	15	3.8
계	397	100.0

#### 4)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사항과 발전방안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사항 중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63.2%인 251명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취업·창업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17.4%인 69명은 ‘교육시설 최신화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 10.8%인 43명은 ‘강사 자질 향상 및 취업준비교육 등 교육강사 개선’, 8.6%인 34명은 ‘교육생 모집 및 홍보 강화 등 교육기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표 22>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사항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사항		빈도(명)	비율(%)
교육강사	강사 자질 향상 및 취업준비교육	43	10.8
교육환경	교육시설 최신화 및 교육비 지원확대	69	17.4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취업·창업 지원	251	63.2
교육기관	교육생 모집 및 홍보강화	34	8.6
계	계	397	100.0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3.4%가 ‘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0.9%는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 18.4%는 ‘사회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인 양성’, 10.8%는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방안’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향후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발전방안

향후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발전방안	빈도(명)	비율(%)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방안	43	10.8
사회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인 양성	73	18.4
일반 여성의 기초지식 습득	18	4.5
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	93	23.4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38	9.6
취업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30	7.6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83	20.9
기 타	19	4.8
계	397	100.0

### 3.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교육강사 만족도와 교육환경 만족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교육기관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매우 만족’을 5점,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측정항목 15개 모두 평점 3점보다 높게 나타나 대부분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24>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N=397)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평균점수 (5점만점)	표준편차
교육강사 만족	1. 담당강사의 전문적 지식수준	4.27	0.789
	2. 담당강사의 실무능력	4.26	0.795
	3. 담당강사의 성실성	4.39	0.719
	4. 담당강사의 강의방법 적절성	4.21	0.779
	전체 평균	4.28	0.698
교육환경 만족	5. 교육에 필요한 교재, 시청각 자료, 물품 비치	3.76	1.002
	6. 실습 기자재, 재료 등의 양과 질	3.75	0.956
	7. 교육시작 시간대의 적절성	3.93	0.913
	8. 1회 강의시간 길이의 충분성	3.91	0.883
	9. 교육비용의 적절성	3.98	0.948
전체 평균	3.87	0.745	
프로그램 만족	10. 교육수준의 다양성 및 단계별 분리지도	3.82	0.936
	11.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내용	3.98	0.881
	12. 취업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3.80	0.917
전체 평균	3.87	0.812	
교육기관 만족	13. 교육 참여자 선정의 적절성	3.83	0.819
	14. 교육생 모집 홍보방법	3.62	0.916
	15. 교육기관에 대한 교통 및 접근성	3.65	0.989
	전체 평균	3.70	0.773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4.00	0.794

교육강사 만족도는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환경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 그 다음으로는 교육기관 만족도로 나타났다.

교육강사 만족도 항목 가운데 ‘담당강사의 성실성’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교육환경 만족도 항목에서는 ‘교육비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만족도 항목에서는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만족도 항목에서는 ‘교육 참여자 선정의 적절성’이 높게 나타났다.

#### 4.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수강생들의 일반적 특성 분석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차이를 가져오는 수강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과 t-검증, 그리고 사후분석으로 Duncan's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교육강사 만족도는 거주지역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주택소유별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기관 만족도는 주택소유별만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 만족도는 거주지역과 생활수준, 주택소유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직업교육 수강생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직업교육 수강생보다 교육강사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직업교육 수강생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직업교육 수강생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 중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거주지역, 미취학아동, 주택소유, 생활수준, 직업여부에 따라 나타났다. 주택소유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를 보면 자가 주택을 소유한 직업교육 수강생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업교육 수강생에 비해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소유에 따른 교육기관 만족도를 보면 자가 주택을 소유한 직업교육 수강생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업교육 수강생에 비해 교육기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소유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를 보면 자가 주택을 소유한 직업교육 수강생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업교육 수강생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를 보면 생활수준이 좋은 직업교육 수강생은 생활수준이 어려운 직업교육 수강생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차이분석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빈 도	교육강사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기관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연령 (N=397)	30대 이하	209	4.31	3.92	3.90	3.67	4.00
	40대	101	4.22	3.78	3.79	3.75	3.99
	50대 이상	87	4.28	3.85	3.86	3.71	4.02
	F		0.558	1.223	0.647	0.322	0.040
교육 수준 (N=397)	고졸이하	148	4.34	3.93	3.90	3.73	3.97
	전문대졸	125	4.24	3.85	3.92	3.70	4.05
	대졸 이상	124	4.26	3.81	3.77	3.66	3.98
	F		0.781	0.841	1.218	0.243	0.375
배우자 유무 (N=397)	있다	327	4.27	3.85	3.85	3.69	4.00
	없다	70	4.33	3.96	3.95	3.72	4.01
	t		-0.649	-1.130	-0.980	-0.287	-0.107
거주 지역 (N=397)	제 주 시	253	4.17	3.84	3.84	3.67	3.94
	서귀포시	144	4.47	3.91	3.91	3.75	4.11
	t		-4.155**	-0.910	-0.764	-0.885	-2.015*
자녀 수 (N=397)	없음	82	4.40	3.98	3.94	3.74	4.03
	있음	315	4.25	3.84	3.85	3.69	3.99
	t		1.781	1.589	0.905	0.572	0.403
미취학 아동 (N=397)	있음	139	4.25	3.80	3.79	3.59	3.91
	없음	258	4.30	3.91	3.90	3.76	4.05
	t		-0.576	-1.405	-1.299	-2.130*	-1.686
주택 소유 (N=397)	자가소유	239	4.32	3.90	3.94	3.79	4.09
	타인소유	158	4.22	3.82	3.75	3.56	3.87
	t		1.437	1.087	2.228*	2.986**	2.705**
생활 수준 (N=397)	어렵다	95	4.21	3.79	3.77	3.61	3.85
	좋다	302	4.30	3.89	3.90	3.73	4.05
	t		-1.132	-1.105	-1.359	-1.308	-2.153*
직업 여부 (N=397)	현재 있다	102	4.32	4.00B	4.00	3.89B	4.12
	과거에 있었다	265	4.27	3.84AB	3.82	3.63A	3.96
	취업경험 없다	30	4.24	3.60A	3.78	3.63A	3.90
	F		0.252	3.924*	1.957	4.404*	1.740
현재 직업의 종류 (N=102)	관리·전문직	28	4.38	3.93	4.01	3.88	4.21
	사무·기술직	22	4.26	3.99	3.95	3.89	4.00
	판매·서비스직	34	4.36	4.04	3.99	3.93	4.11
	자영업	12	4.37	4.08	4.13	4.00	4.25
	기타 직업	6	4.00	4.10	4.00	3.61	4.00
	F		0.424	0.149	0.125	0.287	0.408
과거 직업의 종류 (N=265)	관리·전문직	36	4.06	3.60	3.62	3.39	3.94
	사무·기술직	118	4.26	3.81	3.81	3.67	3.95
	판매·서비스직	68	4.36	3.96	3.93	3.72	4.01
	자영업	26	4.43	4.06	4.03	3.67	4.11
	기타 직업	17	4.20	3.80	3.64	3.47	3.70
	F		1.393	2.061	1.458	1.421	0.715
퇴직 기간 (N=265)	2년 이하	90	4.27	3.78	3.76	3.62	3.95
	3-5년	52	4.17	3.81	3.83	3.61	3.88
	6년 이상	123	4.32	3.91	3.86	3.65	4.01
	F		0.831	0.865	0.399	0.068	0.495
참여 동기 (N=397)	직업적 동기	227	4.25	3.92	3.93	3.74	4.02
	개인적 동기	170	4.33	3.79	3.78	3.64	3.98
	t		-1.205	1.686	1.880	1.237	0.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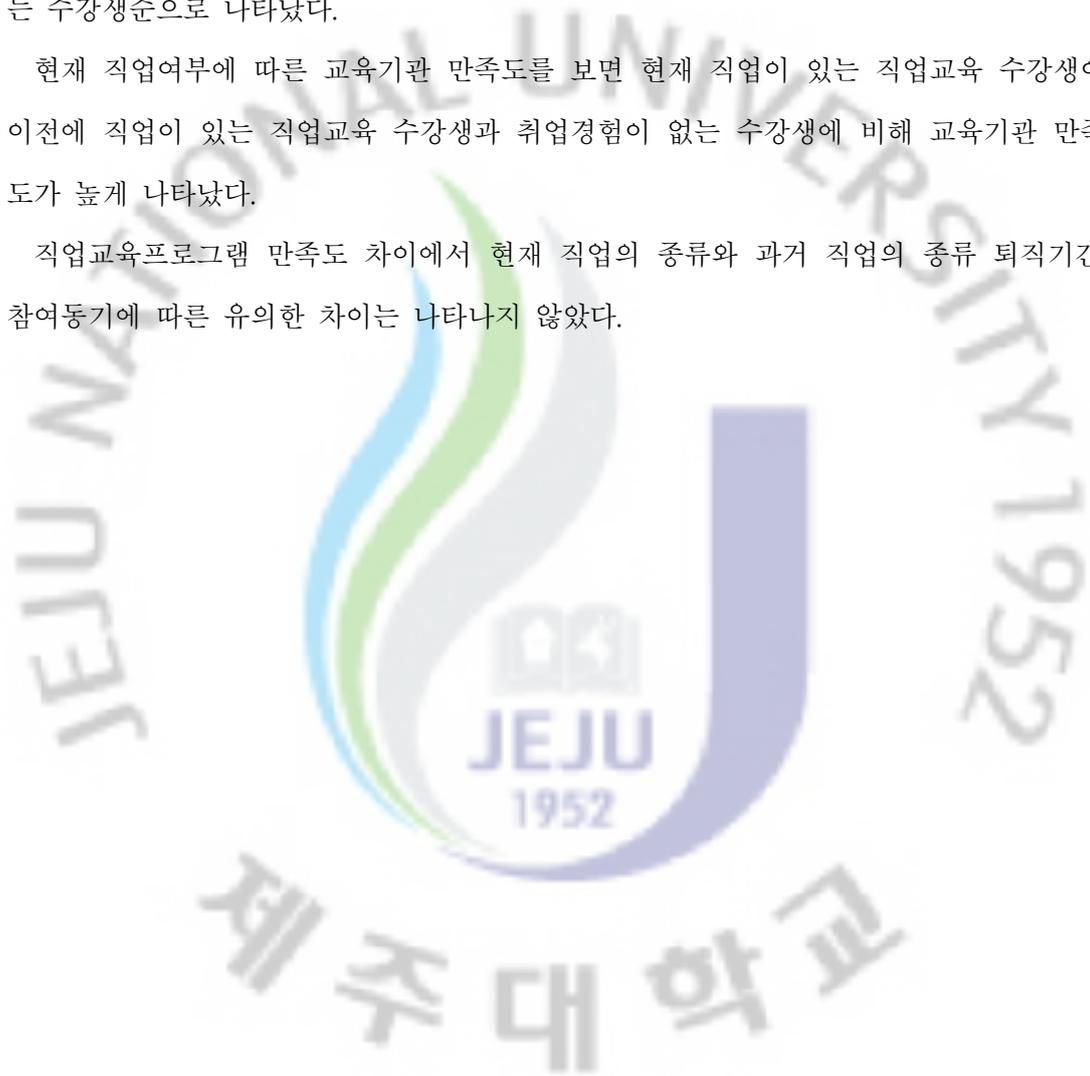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 B, \* p<.05, \*\* p<.01

교육강사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는 직업관련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교육환경 만족도와 교육기관 만족도는 직업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현재 직업여부에 따른 교육환경 만족도를 보면 현재 직업이 있는 직업교육 수강생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거에 직업이 있는 직업교육 수강생, 취업경험이 없는 수강생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여부에 따른 교육기관 만족도를 보면 현재 직업이 있는 직업교육 수강생이 이전에 직업이 있는 직업교육 수강생과 취업경험이 없는 수강생에 비해 교육기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차이에서 현재 직업의 종류와 과거 직업의 종류 퇴직기간, 참여동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V.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 인구의 노령화 및 출산율 감소는 노동력 수요에 대한 새로운 공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육체적 특성 보다는 지적 능력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달성이 여성노동력의 활용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 여성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직업의식 개선과 함께 여성 취업에 대한 질적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가 직업능력개발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여성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여성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참여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도 차이를 가져오는 수강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여성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대체로 배우자가 있는 수강생이 많았으며, 배우자는 30대 이하, 대졸이상, 사무직·공무원이 많았다. 그리고 수강생은 제주시에 주로 거주하며, 30대 이하, 고졸이하, 2인 이상의 자녀, 미취학 아동이 없는 수강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 과거에 직업이 있었던 수강생은 현재 직업이 있는 수강생보다 많았다. 직업이 있는 수강생은 판매·서비스·자영업과 정규직이 많았으며 과거에 직업이 있었던 수강생은 사무·공무원, 정규직, 퇴직기간은 2년 이하가 많았다.

둘째, 여성 직업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직업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가 비슷한 수준이며, 여성 직업교육 수강 시에는 육아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 여성 직업교육 수강내용이 일치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여성 직업교육기관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전문자격증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후 사후관리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은 직업적 활용 의견이 개인적 활용과 복합적 활용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일상생활에 활용할 계획’, ‘취업’, ‘부업이나 자영업’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료 후 여성 직업교육기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사항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취업·창업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과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사회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인 양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항목 모두 높게 나타나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교육강사 만족도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교육환경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왔던 변수로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수강생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수강생에 비해 교육강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 주택을 소유한 직업교육 수강생이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직업이 있는 직업교육 수강생의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가 주택을 소유한 직업교육 수강생은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전반적 만족도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직업교육 수강생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직업교육 수강생에 비해 만족도가 높으며, 자가 주택을 소유한 직업교육 수강생과 생활수준이 좋은 직업교육 수강생이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직업교육기관 요건으로는 전문자격 교육프로그램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직업지식을 쌓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자질 향상 및 능력개발과 함께 사회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인 양성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 지역으로서 관광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제주지역 사회의 여성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여성 관광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관광관련 창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된 수강생은 개인적 동기가 직업적 동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취업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성 개인의 자질 향상 및 능력개발에도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이전에 상담과정을 통하여 관심분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은 취업이나 부업, 자영업 등 직업적 활용이 높게 나타나 직업교육을 통하여 취업알선과 관련 분야의 재교육을 통한 직업교육기관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을 마친 수강생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재교육을 위해 직업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희망취업, 창업, 재교육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이나 창업시에는 관련 사항을 수강생이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육기관은 이와 관련된 재교육 자료 및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터넷 재교육 시스템은 방문하지 않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주며 1대1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실습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토론을 위한 월1회, 또는 분기별로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재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직업이 있는 여성들이 교육기관 및 교육환경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 이러한 결과는 직업이 있는 여성과 직업이 없는 여성들이 혼재되어 교육을 받음으로써 공통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취업과 교양과정을 명확히 분류하고 이에 따른 다양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과 교육 후 사후관리에 대한 기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들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참여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주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이 되기 전 과정과 취업 후의 과정을 심층 질적으로 연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만을 연구하였고 이때 연구 상의 제약과 조사상의 편의를 위해 1년간의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조사하지 못했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전국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하는 연구와 시기별로 바뀌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미나(2001), 여성직업훈련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덕원(2000), 여성의 평생직업교육훈련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명숙(2005), 기혼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원종욱·서문희·강병구·김교성·임유경(2003),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미(2001), 여성실업자의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2002), 여성의 동태적 노동공급-취업연속성과 첫 노동시장 퇴출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5(2), 5-40.
- 김우영(2003),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3(1), 67-101.
- 김지경(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3), 91-104.
- 김지경·조유현(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6(3), 181-207.
- 김태홍 외(2001),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여성부.
- 김혜연·김순미(1997), 비취업 기혼 여성의 취업의사와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2), 81-94.
- \_\_\_\_\_ (1998), 성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및 노동이동 의사의 상호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1), 65-79.
- 김혜영(2005), 양재 직업교육 성과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원(1997), 우리나라 여성사회교육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란(2001),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정(2005). 전업주부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제고 정책방향, **젠다 리뷰**, 여름호.
- 박성정·김남희·이소연·김미경(2005), **중장년층 여성인적자원개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박수미(2003), 한국여성들의 두 번째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여성학**, 19(1), 43-80.
- 박윤희(1999), 민간 여성직업훈련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안지민(2008), **지식기반사회, 여성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대구경북연구원, 대경CEO 제119호.
- 백영의(2007), 직업교육에 참여한 준고령 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도윤(2000), 한국 여성취업정책에서의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주(2007),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신구현(1992), 직업훈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인선(2007), **경상남도 여성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어수봉 외(2000), **일하는 여성의 집 사업체계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 유길상(2001), **21세기 여성직업훈련의 방향**,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YWCA.
- 이경원(2006),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 프로그램 현황과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무근(2003), **직업교육학원론**, 교육과학사.
- 이민석(1992), 여성 직업기술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1988),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안(1998), 여성 사회교육참여자의 교육만족도의 참여동기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준(1990), 한국의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참여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서영(2008),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교육의 개선방향,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6월호**, 제1권 제2호.
- 장지연·김지경(2001),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정미희(2004),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현·구병림·이무근(1989), **직업기술교육론**, 교육과학사.
- 정은경(2001),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창균·고혜원(2001),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부.
- 최경란(2004),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봉희(2002), 여성 실업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여성의 집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경(1995), 사회교육기관의 기혼여성 직업교육에 관한 참여자의 의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렬(2007), 노동시장 수용에 부응하는 숙련인력의 육성, **직업과 인력개발**, 봄호.
- 최지희·정진화·이상준(1999), **여성 인력수급의 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고용정보원(2007),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개발 연구**, 8-9.
- 황수경(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패턴과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발표문**, 25-53.
- 홍유선(2001),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조의 직업훈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수경(2006),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노동부(2007), *여성과 취업*,
- 노동부(2008), *2008 노동백서*,
- 노동부(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2008-2012*.
- 여성부(200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침*.
- 여성부(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6년도 시행실적 및 2007년도 시행계획*.
- 여성부(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07) 2007년도 시행실적 및 2008년도 시행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2006), *2006 제주여성통계*
- 통계청(2006),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http://www.kosis.kr)*.
- Jang, S. Y., & Merriam, S.(2005), Korean culture and the reentry motivations of university women, *Adult Education Quarterly*, 23-51.
- Hoffman, L. W.(1974), *Employment of Women and Fertility, Working Moth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Moen, P.(1985),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Women's Labor Force Activity,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Cornell University Press.
- Carsic Hammonds(1968), *Teaching Vocation*, New York : Interstates Printers & Sons, Inc.
- UNESCO. ILO(1984),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elgium.

## Abstract

### Participation in Women'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 with a focus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Ko, Eun-joo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Hye-yeon, Ph. D.

As more women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joining the workforce. Developing the female workforce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ogether with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women.

This study examine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women provided by specialized agencies and institutes in the Jeju region, which has traditionally exhibited a high rate of female participation in the workforce. Students from the three largest vocational training centers in Jeju-- the Wo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the Jeju Women's Development Center, and the Seogwipo City Women's Cultural Center-- were surveyed regarding their participation, satisfaction with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hat might affect program experienc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eline data and analysis that can be used in policy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he sample included 397 respondents surveyed over the period of June 23rd to September 12th, 2008. Questionnaires were created according to the accepted norms of existing research in the field, with questions about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their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such programs. Overall trends in the data were explor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and average. Deeper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analysis,

and ANOVA. Finally, error- and significance-testing was achieved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RT) and the t-test. SPSS was the statistical package used to run the analyse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students in female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re under 30 years of age, have education beyond high school, and aren't economically disadvantaged. Many of the students in vocational training possessed prior job experience, particularly in clerical or technical fields, or as regular company employees. However, most of the students had not worked in over 6 years. The most common reason given for participating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was "gaining employment", however other reasons frequently cited were "making good use of spare time" and "vocational training as a hobby". Such responses are startling as they suggest that not all students receiving vocational training have employment as their ultimate goal.

Second, inconveniences experienced by participants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included difficulties securing childcare, economic stress, and transportation problems. However, most respondents said that the programs met their expectation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urriculum of female vocational programs included creating technical certificate programs, increasing the diversity of programs on offer, providing support services for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and establishing a class for obtaining licenses related to employment.

Third, most participants were satisfied overall with their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s. Students who already had jobs exhibited the highest satisfaction over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institutions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However, respondents with certain general characteristics exhibited a marked lack of satisfaction with the training programs, which suggests that the programs need to be more targe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llustrate the need to separate vocational/employment training from general education. Also,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women need to become more differentiated to address the needs of specific groups.

## 부록. 설문지

###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처리되어 학문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이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에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김혜연 교수

연구자 :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과정 고은주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 )세

2. 귀하의 교육수준은? (재학과 중퇴는 졸업에 포함합니다)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졸 ④ 대학 졸 ⑤ 대학원 수료 이상

3.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분이 함께 거주하십니까? ( )명

\*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해주세요

9. 자녀가 있다면 몇 명입니까? ( )명

9-1. 막내 자녀의 나이는? ( )세

◆ 다음은 귀하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10.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빌라    ④ 기타( )

11.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 소유 여부는?

① 자가소유    ② 전세    ③ 월세    ④ 임대    ⑤ 기타( )

1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_\_\_\_\_ 시 \_\_\_\_\_ 동·읍·면

13. 현재 귀하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 수준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 다음은 귀하께서 수강하고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대답해주세요.

14. 직업교육을 받게 된 가장 큰 동기 하나만 표시해주시오.

① 취업하기 위해    ② 자격증 취득 위해    ③ 승진을 위해  
④ 직장을 옮기기 위해    ⑤ 자영업 및 부업을 위해    ⑥ 지식 및 교양을 쌓기 위해  
⑦ 여가 선용 및 취미생활    ⑧ 사교적인 목적으로    ⑨ 기타( )



18. 다음은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하나만 표시해주시요.

- ① 강사의 자질 향상 ②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③ 교육시설 장비의 최신성  
 ④ 취업준비교육 ⑤ 취업 및 창업 지원 ⑥ 교육생 모집 홍보 강화  
 ⑦ 교육비 지원 확대 ⑧ 취업, 재교육 등 사후관리 ⑨ 기타( )

19. 다음은 직업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하나만 표시해주시요.

- ① 기초과정 교육 확대 ② 수준 높은 강의 ③ 교육 후 자격증 취득용이  
 ④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⑤ 다양한 교육시간 배정 ⑥ 접근성용이  
 ⑦ 전문가자격증 교육프로그램 확대 ⑧ 현장 실무위주 교육 확대  
 ⑨ 창업관련 교육 확대 ⑩ 교육 후 사후관리 ⑪ 최신 교육시설 및 장비 비치  
 ⑫ 유아보육시설 설치 ⑬ 교육비 및 재료비 인하 ⑭기타( )

20. 수료 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① 취직할 생각이다 ② 부업이나 자영업을 할 생각이다  
 ③ 취업 후 진학할 생각이다 ④ 다른 기술을 배울 생각이다  
 ⑤ 바로 진학할 생각이다 ⑥ 수료 후에 생각해 보겠다  
 ⑦ 일상생활에 활용하겠다 ⑧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  
 ⑩ 기타 ( )

21. 수료 후 교육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까?

- ① 관련분야 재교육 ② 수료생 모임주선 ③ 다른 교육프로그램 참여 도움  
 ④ 교육 관련 정보 제공 ⑤ 취업 알선 ⑥ 기타 ( )

22. 귀하의 경험으로 볼 때 향후 직업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방안 ② 사회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인 양성  
 ③ 일반 여성의 기초지식 습득 ④ 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  
 ⑤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⑥ 취업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⑦ 건전한 직업관 확립 ⑧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⑨ 기타 (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